

회복 중인 단도박자의
선행(善行)체험에 관한 연구

강 준 혁

서강대학교



주 제 분 류

사회복지, 정신건강

주 제 어

도박중독, 회복, 선행체험, 현상학

요 약 문

이 연구의 목적은 회복 중인 단도박자들의 선행체험을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이 회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체험 경험이 있는 단도박자 8인과 1:1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Giorgi가 제안한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선행 가치 발견', '선한 본성 발현', '자기반성', '책임감 생성', '새 역할 발견'을 포함하는 총 5개의 주제를 추출했다. 둘째, 연구자는 모든 주제를 통합하여 '자기반성을 통해 타자를 책임지는 주체로 거듭나기'라는 본질적 주제를 뽑아냈다.

연구자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단도박자가 선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회복자들 상호간에 좋은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다양한 선행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접 수 일 : 2018년 5월 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8년 5월 21일



생명연구 제48집 2018년 5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48, May 2018, pp. 267~293
<https://doi.org/10.17924/solc.2018.48.267>

회복 중인 단도박자의 선행(善行)체험에 관한 연구*

강준혁
 서강대학교

I. 서론

한국사회의 도박문제는 심각하다.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¹⁾에 따르면 한국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성인 100명 중 5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호주(2.3%), 체코(2.3%), 뉴질랜드(1.3%), 스웨덴(1.4%) 등 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가 아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 7,000명 중 절반 이상(57.1%)이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도박은 언제나 돈을 수단이자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개인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체계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과제번호 NRF-2017S1A5B805747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이용실태』, 201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도박에 빠진 개인은 가족, 친구, 이웃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되고 심지어는 횡령,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이차적인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2)3)

이렇듯 도박중독의 문제는 개인을 넘어 그가 속한 사회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도박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도박중독자의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⁴⁾⁵⁾⁶⁾⁷⁾⁸⁾

기존 연구들은 도박중독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해 내고, 회복을 위해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회복 중인 단도박자를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많은 경우 단도박자들은 회복과정에서 자조모임과 지역사회에서 타인을 돕는 활

-
- 2) 안상원·한상철, 「도박 중독자의 2차 범죄화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치료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3권 1호, 2013, 90-114쪽.
 - 3) Alex Blaszczynski, Neil McConaghy, and Anna Frankova “A Crime, Antisocial Personality and Pathological Gambling “,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Vol. 5, No. 2, 1989, pp. 137-152.
 - 4) 김영훈·이영호,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권 호3, 2006, 697-710쪽.
 - 5) 윤명숙·채완순,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한국사회복지학』, 62권 3호, 2010, 271-297쪽.
 - 6) 채정아, 『단도박자의 회복유지과정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7) David C. Hodgins, and Nady el-Guebaly, “Natural and Treatment-Assisted Recovery From Gambling Problems: A Comparison of Resolved and Active Gamblers“, *Addiction*, Vol. 95 No. 5, 2000, pp. 777-789.
 - 8) Simon Anderson, Fiona Dobbie, and Gerda Reith, *Recovery From Problem Gambling: a Qualitative Study*, Scottish Centre for Social Research for the Gambling Commission, 2009.

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종종 다음의 사례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체험을 한다.

“그저 밥을 얻어먹을 수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에 꽃동네 봉사자로 가게 되었다...정신질환으로 힘든 환우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석 달 정도는 정신없이 흘러갔다. 그들은 나의 작은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다...사실 그들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내가 그들의 눈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것이었다. 멀쩡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그 환우들은 오히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었다. 그때부터 내 생활은 확 바뀌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9)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봉사활동과 같은 선행체험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¹⁰⁾¹¹⁾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복 중인 단도박자의 선행체험¹³⁾

9) 김호진·조철희, 『삶을 베풀하는 사람들』, 시그마북스, 2013.

10) 최명민, 「정신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임파워먼트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권 3호, 2004, 89-112쪽.

11) 문재우·유연웅, 「자원봉사활동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권, 2013, 87-107쪽.

12) 정은희·강상경, 「자원봉사와 우울 궤적의 종단적 관계: 세 연령집단 간 다집단 비교」, 『사회복지연구』, 45권 1호, 2014, 203-230쪽.

13)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봉사활동이 아닌 선행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두 용어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다. 봉사(奉仕)의 경우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쓴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지만 선행(善行)은 덕행의 유의어로 착하고 어진 행실 그 자체를 뜻한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체험을 표현하는 용어로 선행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의 체험은 사회복지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 중인 단도박자들의 선행체험을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이 회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자는 연구주제와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방법¹⁴⁾을 활용했다. 이 방법은 특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전문가 집단이 도움을 얻어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중독관리센터와 단도박모임에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소속 전문가들로부터 연구 주제에 맞는 참여자를 소개받았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의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만들었다. 선정기준은 첫째, 현재 회복 중인 단도박자일 것, 둘째, 자조모임이나 지역사회에서 1년 이상 지속적인 선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정했다. 1년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회복과 선행체험의 관련성을 보여주기에 12개월 이하는 짧다고

지관, 요양원 등에서 하는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넘어 자조모임이나 중독관리센터에서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겪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선행이 참여자들의 체험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14) Lisa M. Miller, and Carol L. Carpenter, "Altruistic leadership strategies in coaching: A case study of Jim Tressel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A Journal for Physical and Sport Educators*, Vol. 22, No. 4, 2009, pp. 9-12.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전문가집단과 상의한 후 이 기준에 부합하는 총 8명의 참여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자들의 기초 정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기초정보

구분	성별	연령	도박종류	선행 장소	선행 대상
참여자 1	남	78	카지노	카지노 주변	도박자
참여자 2	남	71	카지노	카지노 주변	도박자
참여자 3	여	64	카지노	카지노 주변	도박자
참여자 4	여	61	카지노	요양원	노인
참여자 5	여	61	카지노	요양원	노인
참여자 6	남	45	스포츠토토	단도박모임	도박자
참여자 7	남	46	주식	단도박모임	도박자
참여자 8	남	41	경마	단도박모임	도박자

2. 자료수집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했다. 면담은 연구참여자당 2회 실시했으며, 평균 면담 시간은 90분이었다. 연구자는 원활한 면담 진행을 위해 ‘선행 계기’, ‘선행을 통해 느끼거나 배운 점’, ‘선행을 계속하는 이유’ 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면담장소는 카지노 및 참여자의 거주지 주변 카페, 참여자의 사무실 등 참여자가 원하는 곳으로 정했다.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소속 대학 내 상담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했고 녹음자료는 분석을 위해 모두 전사하여 원자료(raw data)로 만들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Giorgi¹⁵⁾¹⁶⁾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인식 단계이다. 연구자는 전체 진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서 원자료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맥락을 파악했다. 둘째, 의미단위 확인 단계이다. 연구자는 의미단위(meaning units)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현상 즉, ‘회복 중인 단도박자의 선행체험’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를 다시 읽었다. 셋째, 학술적 언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일상 언어로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진술내용을 반성(reflection)과 상상적 변형(imaginative variation) 과정을 거쳐 학술적 언어(disciplinary language)로 변형시켰다. 넷째, 체험의 본질적 구조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선행체험의 본질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변형된 의미 단위나 주제들을 일반적 진술(final general description)로 통합했다. 마지막으로 본질적 구

15) Amedeo Giorgi,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Vol. 28, No. 2, 1997, pp. 235-260.

16) Amedeo Giorgi,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Vol. 43, No. 1, 2012, pp. 3-12.

조를 활용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 이 구조를 활용했다.

4. 연구의 윤리적 문제 고려와 엄격성 확보 전략

1) 연구의 윤리적 문제 고려

연구자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실시 전 연구자가 직접 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으며 동의를 구했다. 그 밖에도 자체 윤리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했다. 첫째, 윤리적 민감성 향상이다.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앞서 윤리적 민감성 향상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했다. 둘째,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이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전사 후 녹음자료를 모두 파기했으며, 자료에 있는 이름, 거주지 등의 직접적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다.

2) 엄격성 확보 전략

엄격성은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관련되는데,¹⁷⁾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했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이다. 연구자는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참여자들과 사전만남을 가졌으며, 지속적

17) Deborah 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California: Sage, 1998.

인 만남을 통해 연구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둘째, 다원화 전략이다. 연구자는 다양한 자료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가 작성한 수기, 메모 등을 확인했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했다. 셋째,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이다. 연구자는 중독재활 전문가 1인과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을 동료집단으로 구성하고 이들로부터 연구 전반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Ⅲ. 연구결과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의미단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확인된 여러 의미단위 중 중복되는 것을 통합하여 11개의 하위주제로 재구성했다. 이후 연구자는 하위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총 5개의 새로운 주제를 추출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체험을 상황적 구조기술과 일반적 구조기술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상황적 구조기술에서는 참여자들의 개별 체험이 하위주제를 통해 드러나도록 했으며, 일반적 구조기술에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체험에 부여한 의미의 공통점들을 하나의 일반적 진술문으로 통합했다. 도출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주제목록

주제	하위주제
선행 가치 발견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음 봉사하며 사는 동료의 모습을 닮고 싶음
선한 본성 발현	원래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음 좋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낌
자기반성	봉사활동 대상을 통해 내 삶을 돌아 봄 다른 도박자를 보며 현재를 감사하게 여김 그들의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일까 걱정됨
책임감 생성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남 도박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듦
새 역할 발견	도박중독자를 돕는 일을 하고 싶음 좋은 회복모델이 되고자 노력함

1. 상황적 구조기술

1)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음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단도박을 하고 도박이 아닌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겼다. 참여자들은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자했다. 그래서 그들은 중독관리센터, 단도박모임 등에서 다른 도박중독자를 돕거나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물론 어느 정도 활동비를 받는 참여자들(참여자 1, 3)도 있었지만 대부분 무급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냥 일만하고 사는 것 보다 사람이 뭔가 뜻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카지노 다닐 때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다른 사람도 돕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참여자 4).”

2) 봉사하며 사는 동료의 모습을 닮고 싶음

봉사하며 사는 동료 회복자의 모습 역시 선행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열심히 살면서 선행을 베푸는 동료 회복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자조모임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참여자 2, 3, 4, 5, 6, 7, 8)은 남을 도우며 성실히 살아가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역할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우리 모임에 나오시는 선생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바쁘게 열심히 사시는데, 매번 모임에 나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티도 안내면서 조용히 술선수범 하시는 모습 보면 아~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참여자 7).”

3) 원래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음

성선설에 따르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한 것이다. 반대의

주장 역시 존재하지만 적어도 이 연구의 참여자들(참여자 1, 3, 4, 5)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상부상조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여자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이 선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원래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옛날부터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봉사활동 모임이 만들어져서 기회가 생긴 거지.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참여자 5).”

4) 좋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낌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남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부족하지만 남을 도우면서 보람 있게 사는 것이 도박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봉사활동 같은 선행을 평소 고려하지 않았던 참여자들(참여자 2, 5, 6, 7)은 남을 돕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한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보람은 선행의 결과가 긍정적일 때 강해졌다. 가령 자신이 도와준 도박중독자가 단도박을 시작하거나 상대방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 참여자들은 보람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GA모임(단도박모임)에서 일을 하다보면 보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봉사활동 같은 걸 할 생각도 못했죠. 맨날 도박에

만 빠져 살았으니깐요. 도박 끊고 막상 해보니까 보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참여자 6).”

5) 봉사활동 대상을 통해 내 삶을 돌아 봄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봉사활동 대상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요양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참여자 4, 5)은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도박에 빠져 허송세월 보낸 지난날을 후회했으며, 다른 도박자들을 돕고 있는 참여자들(참여자 1, 2, 3, 6, 7, 8)은 현재도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봤다고 한다. 대상이 누구든 타자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다. 이것은 선행체험의 순기능이라 해석할 수 있다.

“자꾸 이야기해도 거기(카지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 전에도 몇 사람 그런 사람 봤는데, 답답하면서 아~ 나도 옛날엔 저랬지...휴(한숨) 하면서 옛날 한창 카지노에서 살 때, 그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참여자 3).”

6) 다른 도박자를 보며 현재를 감사하게 여김

타자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안으로 삼는다. 연구참여자들(참여자 1, 2, 3, 6, 7, 8) 역시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도박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현재를 감사하게 생각했다.

“노름에 미쳐서 해매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매일 돈 빌리러 다니고, 거짓말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혼자서. 그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나는 오히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 돈 빌리러 안 다녀도 되고, 거짓말 안 해도 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참여자 1).”

7) 그들의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일까 걱정됨

연구참여자들(참여자 4, 5)은 요양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했다. 요양원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닥칠 노년기를 생각한 것이다. 사회심리학에서는 미래에 개인이 꿈꾸거나 두려워하는 자기에 대한 상을 ‘가능한 자기(possible selves)’라고 하는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가능한 자기’는 삶을 이끌어 가는 동기로 작용한다.¹⁸⁾ 참여자들 역시 요양원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미래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으며, 좀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 보면서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까딱 잘못했다가는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참여자 4).”

18) David G. Myers, *Social Psychology(11th edition)*, McGraw-Hill, 2013.

8)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남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남을 돕는 과정에서 만남을 계속할수록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의 관계형성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도박자들을 도와줬던 참여자들(참여자 1, 2, 3, 6, 7, 8)은 중독관리센터나 단도박모임에 먼저 나가 그들을 기다렸으며, 요양원에 방문했던 참여자들(참여자 4, 5)은 어르신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선행체험을 통해 만난 타인의 얼굴은 레비나스(Levinas)¹⁹⁾²⁰⁾가 언급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주체로서 거듭나게 해주는 힘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 신기한 게, 요양원 다녀와서 며칠 동안 내가 만났던 그 어르신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계속 떠오르네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휴~ 계속 가게 되더라고. 힘들어도 계속 생각이 나니까(참여자 5).”

9) 도박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맹자(孟子)는 사람은 누구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측은

19) Emmanuel Levinas, 서동욱 옮김, (2003).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20) Emmanuel Levinas, trans. Hand, S. *Difficult Freedo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진다고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참여자 1, 2, 3, 5, 6, 7, 8)은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포기하고 싶지만 자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계속 조언을 해주고 안내를 해준다고 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같은 고통을 겪어 봤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구술했다. 도박중독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책임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참 저도 겪어봐서 잘 알지예...쉽지 않은 것도 잘 안다 아입니까. 그래도 안타까워서 도와줄라고 이 지역에 단도박모임까지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그때 무진장 애 많이 썼습니다(참여자 2).”

10) 도박중독자를 돕는 일을 하고 싶음

다른 도박중독자를 돕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참여자 3, 5, 6)은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했다. 참여자들은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 상담사 준비를 하거나(참여자 3, 6), 사회적 기업 같은 자활단체(참여자 5)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선행체험이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새로운 삶의 동기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능하면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도

와주고 싶어요. 그것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참여자 6).”

11) 좋은 회복모델이 되고자 노력함

반드시 도박중독 재발과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연구참여자들(참여자 1, 2, 4, 6, 7, 8)은 좋은 회복모델이 되고자 노력했다. 여기에서의 좋은 회복모델이라는 것은 단도박을 같이 하거나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참여자 1, 2, 6, 7, 8)은 자신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회복을 위해 더 노력했다. 이는 관계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타자의 시선에 대한 인식이 회복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 타인의 지지가 도박중독자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²¹⁾²²⁾을 고려할 때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본다.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선생님들도 열심히 저 보면서 노력하죠. 내가 개차반처럼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똑바로 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GA(단도박모임) 활동도 하고 봉사도하고 그러는 거죠(참여자 8).”

21) 양정남·최은정·이명호·소영, 「청소년의 우울, 충동성,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이 청소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권 5호, 2011, 357-383쪽.

22) 한영옥·정준용·김한우, 「병적 도박자 가족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권 2호, 2011, 263-277쪽.

2. 일반적 구조진술

Giorgi²³⁾²⁴⁾ 방법의 마지막 절차는 ‘일반적 구조 기술’ 과 이를 활용한 해석이다. 이 단계는 변형된 의미 단위 속에 포함된 통찰을 참여자의 체험에 대한 일관적 진술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회복 중인 단도박자의 선행체험’의 본질적 구조를 드러내고자 했다.

본질적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체험에 대한 하위주제들을 ‘선행 가치 발견’, ‘선한 본성 발현’, ‘자기반성’, ‘책임감 생성’, ‘새 역할 발견’으로 통합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들은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고 봉사하며 사는 동료 회복자들의 모습을 닮고 싶어 했다. 이러한 상황은 선행의 동기로 작용했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를 ‘선행 가치 발견’으로 명명했다.

선행의 가치를 발견한 참여자들은 타인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선행을 통해 본래 가졌던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연구자는 이를 ‘선한 본성 발현’으로 통합했다.

선한 본성의 발현뿐만 아니라 선행체험은 자기반성의 기회로 작용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며,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박자들을 보면서 현재를 감사하게 여겼고,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

23) Amedeo Giorgi, 1997.

24) Amedeo Giorgi,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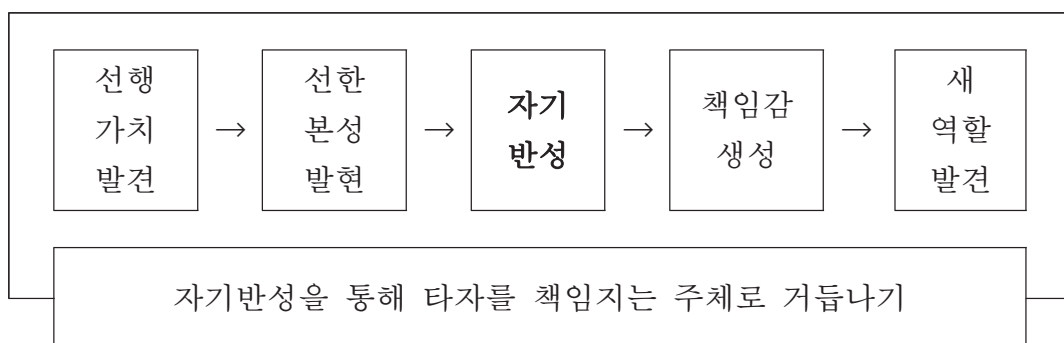
면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체험들을 통합하여 ‘자기반성’으로 명명했다.

선행체험은 자기반성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선행 과정에서 관계형성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남을 느꼈으며,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연구자는 이를 ‘책임감 생성’으로 재구성했다.

생성된 책임감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도박중독자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했으며, 다른 회복자나 중독자에게 모범이 되는 회복모델이 되고자 했다. 연구자는 이를 ‘새 역할 발견’으로 명명했다.

지금까지 서술한 연구참여자들의 선행체험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체험은 결국 ‘자기반성을 통해 타자를 책임지는 주체로 거듭나기’로 명명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일반적 구조진술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회복 중인 단도박자들의 선행체험을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이 회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선행체험을 통해 선한 자기본성을 확인했고 자기반성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타자를 책임지는 주체로 거듭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단도박자의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회복 중인 단도박자를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한정지어 보려는 경향이 있다. 치료의 대상, 개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타인을 돕는 행위를 통해 자기반성을 했으며, 도움을 받는 대상에서 도움을 주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따라서 단도박자를 바라볼 때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로 여길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실천적 함의이다. 첫째, 선행활동 지원에 관한 논의이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단도박을 하고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자 했으며, 남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실천가들은 단도박자의 회복의지 생성과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일 필요는 없다. 자조모임에서 힘들어하는 동

료 단도박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관심을 자기 안에서 밖으로 돌릴 수 있게 돕고 선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둘째, 역할모델에 관한 논의이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동료 회복자들의 모습에서 선행의 가치를 발견했으며, 자신들 또한 좋은 회복모델이 되고자 노력했다. 이에 실천가들은 회복자들 상호 간에 좋은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셋째, 선행체험 프로그램의 다각화에 관한 논의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도박중독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선행체험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이나 자조모임 내 봉사활동으로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통찰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능기부,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선행의 기회를 발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선행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회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단도박자의 선행과 회복의 관련성을 양적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선행의 종류가 카지노 주변에서의 도박중독 예방활동, 요양원 봉사활동, 단도박모임에서의 선행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훈·이영호,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권 3호, 2006.
- 김호진·조철희, 『삶을 베풀하는 사람들』, 시그마북스, 2013.
- 문재우·유연웅, 「자원봉사활동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권, 2013.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이용실태』, 201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안상원·한상철, 「도박 중독자의 2차 범죄화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치료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3권 1호, 2013.
- 양정남·최은정·이명호·소영, 「청소년의 우울, 충동성,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이 청소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권 5호, 2011.
- 윤명숙·채완순,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한국사회복지학』, 62권 3호, 2010.
- 정은희·강상경, 「자원봉사와 우울 궤적의 종단적 관계: 세 연령집단 간 다집단 비교」, 『사회복지연구』, 45권 1호, 2014.
- 채정아, 『단도박자의 회복유지과정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최명민, 「정신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임파워먼트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권 3호, 2004.

한영옥 · 정준용 · 김한우, 「병적 도박자 가족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권 2호, 2011.

Alex Blaszczynski, Neil McConaghy, and Anna Frankova “A Crime, Antisocial Personality and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Vol. 5, No. 2, 1989.

Amedeo Giorgi,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Vol. 28, No. 2, 1997.

Amedeo Giorgi,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Vol. 43, No. 1, 2012.

David C. Hodgins, and Nady el-Guebaly, “Natural and Treatment-Assisted Recovery From Gambling Problems: A Comparison of Resolved and Active Gamblers“, *Addiction*, Vol. 95 No. 5, 2000.

David G. Myers, *Social Psychology(11th edition)*, McGraw-Hill, 2013.

Deborah 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California: Sage, 1998.

Emmanuel Levinas, trans. Hand, S. *Difficult Freedom*,

-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 Emmanuel Levinas, 서동욱 옮김,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 Lisa M. Miller, and Carol L. Carpenter, “Altruistic leadership strategies in coaching: A case study of Jim Tressel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A Journal for Physical and Sport Educators*, Vol. 22, No. 4, 2009.
- Simon Anderson, Fiona Dobbie, and Gerda Reith, *Recovery From Problem Gambling: a Qualitative Study*, Scottish Centre for Social Research for the Gambling Commission, 2009.

A Study on the Recovering Gambling Addicts' good deed experiences

Kang, Jun Hyeok
(Sogang Univ.)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ambling addicts' good deed experiences and the recovery from addiction through looking at the their good deed experiences. For this purpose, the 8 gambling abstinences who have good deed experiences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in depth. The data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were analysed by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Meaningful units were categorized into 5 themes such as finding value of good deed, unlocking good nature, self-reflection, Feeling responsibility, finding new role. Secondly, the participants' good deed experiences could be summarized as 'becoming a person responsible for others through self-reflection'. I proposed some practical suggestions for 'helping gambling addicts look back on themselves through good deed', 'helping the recovering gamblers be a good role model for each other', 'discovering and

providing a variety of good deed programs'.

Subject: Social welfare, Mental health

Key Words: Gambling Addiction, Recovery, good deed experiences, phenomenology